

신안 하나로마트서 수입과일 판매...지역 농가 '반발'

임자농협·신안농협, 수입 바나나·키위 유통 50km 이내 생산 농수산물 유통 규정 어긋나 국산 바나나 생산 지역농가들 원성 잇따라 전남농협 "주기적인 현지 점검 나서겠다"

신안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과일과 농산물들이 판매되고 있어 지역 생산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는 바나나 등 15개 품목에 대한 수입농산물 판매가 금지되었지만 신안 2곳의 하나로마트에서는 일부 수입 과일을 판매하고 있어서다.

●골드키위·석류 등 수입산 과일 판매

지난 13일 찾은 신안군 임자면 임자로 123 임자농협하나로마트 상품판매대에는 '골드키위 원산지 뉴질랜드', '석류 원산지 미국' 가격표가 붙여진 과일들이 진열돼 있었다.

농협중앙회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수입농산물 판매금지 규정에는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키위, 레몬 등 열매·과실류 △쌀, 보리를 포함하는 곡류 △고추, 당근, 양배추 채소류 등 15개 품목에 대한 판매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수입산 골드키위, 석류 등을 판매하는 이유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서라는 게 임자농협하나로마트 측의 입장이다.

임자농협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늘어나면서 키위, 석류 등을 찾고 있다"며 "임자농협하나로마트를 찾는 고객을 위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지역농가와 상생' 로컬푸드 매장 취지 무색

신안군 암태면에 위치한 신안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별도로 운영중인 로컬푸드 구역에 수입산 바나나, 파인애플, 레몬 등을 진열해 판매하고 있다. 바로 옆 판매대에는 '원산지 인도, 파키스탄'이라고 쓰여 있는 묶음참깨 제품도 놓여 있었다.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수산물로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만을 일컫는다.

생산지와 소비자 간 배송 거리 및 유통 단계를 줄여 식품의 신선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로컬푸드 구역에 제품이 유통되기까지 과정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확, 포장, 가격결정, 직매장 내 진열, 재고관리 등을 직접 수행해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이다.

하지만 신안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구역에는 수입 과일과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다.

지역민들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수입산 과일·농산물이 판매되는 것에 대해 '운영 취지에 맞지 않다'는 반응이다.



신안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신안군 임자농협하나로마트에 뉴질랜드산 키위가 판매되고 있다.



신안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에 필리핀산 바나나, 남아프리카산 자몽, 칠레산 아보카도 등이 판매대에 놓여 있다.

소비자 A(암태면·52)씨는 "친환경 유기농 방식으로 지역 농가들이 직접 재배한 농수산물을 받고 구매할 수 있어 로컬푸드만을 이용하고 있다. 지역 농가와 상생하기 위한 매장에 수입산 과일을 왜 판매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계절근로자 등을 배려하기 위한 판매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윤 추구에 급급해 수입 농산물 마저 판매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 국산품이 설 자리가 줄어들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로컬푸드구역의 수입산 과일 품목 가운데 바나나 판매를 놓고 지역 농가들의 반발도 잇따랐다.

신안군이 2023년부터 임대방식으로 운영하는 암태면 청년임대농장에서 4곳의 농가들이 국산 바나나를 생산하고 있으며 신안농협하나로마트로부터 반

경 50km 이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암태면 청년임대농가 B씨는 "겨울철이어도 실내 최저온도를 20도로 유지해 2개월간 후숙과정을 거치면 상품화가 가능하다. 지난해 7.2톤이 출하됐고 마땅한 판로가 없어 지역 부녀회, 마을 직거래 유통 방식으로 1순에 5000원~7000원에 거래된게 전부"라며 "농장과 신안농협하나로마트 매장 거리도 50km 이내로 납품조건에 충족된다. 지역농민과 함께 상생하겠다는 농협이 수입산 과일을 판매하는 행위는 농민을 배신한 행위나 마찬가지다"고 울분을 토했다.

로컬푸드 구역 매장은 지역 농민들에게 직접 수익을 돌려주기 때문에 농민 소득을 증가시켜 농업 경쟁

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전남에는 총 118곳의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 구역이 운영중이다.

농협전남본부는 하나로마트의 수입산 과일·농산물 판매에 대해 집중 관리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농협전남본부 농촌지원단 관계자는 "설 대목을 앞두고 상품 재고가 쌓이고 판매대가 협소해 로컬푸드 구역 판매대에 임시로 상품을 진열해 왔다. 농협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브랜드 관리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하나로마트 담당자 교육, 현지 점검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신안 홍일갑기자



전남농협, 상호금융 사업추진 방향 교육

"변화·혁신 통해 새로운 성장"

농협전남본부는 지난 15일 나주 농식품공무원 교육원에서 전남·광주·전북지역 상임이사, 전무 25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 방향 교육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국내 경기 불황이 예상됨에 따라 상호금융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과 고객의 변함없는 신뢰를 유지

하기 위해 전사적인 연체관리 강화로 연체율 3.0% 달성, 디지털 경쟁력 강화로 미래금융 주도, 시장 불확실성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운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광일 농협전남본부장은 "농협을 둘러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며 "전남농협은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의 실익증진과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용 기자**

지난 15일 농협전남본부가 나주 농식품공무원 교육원에서 전남·광주·전북지역 상임이사, 전무 250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 추진 방향교육'을 시행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신안군, 천일염 산업 경쟁력 강화

염전 시설 현대화

전국 천일염의 80%를 생산하는 지역인 신안군은 천일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와 위생관리에 총 215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산시설의 자동화와 위생적인 생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염전 바닥재 개선 사업(37억원)과 자동채염기 및 이동수레 자동화 장비 지원(10억원)을 포함한다.

천일염의 장기 저장시설(2억원)과 포장재 지원(4억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통구조 개선

을 위해 천일염 유통단지 조성에 95억원,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1억원, 홍보 및 마케팅에 2억원이 투입된다. 170억원 규모로 건립된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저장·가공·유통 기능을 연계해 천일염의 유통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천일염의 판로 확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해 자동 소포장기 도입(5억원)과 수출 마케팅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근로 환경 개선에도 집중 염전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1:1 전담제를 실시하고 100억원을 들여 염전 근로자 안심소식을 건립한다. 더불어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통해 근로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신안·홍일갑기자**